

‘모두의 창업 2기’ 출범...창업 준비 본격화

창업에 도전하는 국민이 늘면서 정부가 예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 구체화와 사업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전남광주지역에서도 창업 도전자들이 지역별 멘토 기관과 연계해 본격적인 창업 준비에 들어갔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모두의 창업 2기 출범식’을 열고 1차 관문을 통과한 1만명의 도전자를 대상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이번 2차 모집에는 9만3000여명이 신청했다. 1차 모집 당시 6만3000여명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로, 창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도전 열기를 보여줬다.

전남광주지역에서는 일반·기술 트랙 481명이 선정됐다. 로컬 트랙에서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213명이 선발돼 총 694명이 1라운드에 진출했다.

전남광주 도전자 694명 1라운드 진출...1만명 참여 창업 활동 자금·멘토링·AI 솔루션 등 다양한 지원

선발된 도전자들은 앞으로 창업활동자금과 전문 멘토링, 인공지능(AI) 솔루션 등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장에서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남광주지역에서도 지역별 출범 행사 가 열렸다.

광주에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행사가 진행됐으며, 전남에서는 순천과 나주, 목포에서 각각 지역별 오리엔테이션과 네트워킹이 마련됐다.

전남지역 행사에는 국립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전남창업기술지주, 이엔티이노베

이션,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멘토 기관으로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향후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일정을 안내받고 멘토 기관과 교류하며 창업 활동을 준비했다.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진행된 1차 프로그램에서는 멘토링과 사업 구체화 과정을 거쳐 투자 유치와 특허 출원 등 성과를 거둔 도전자들이 나왔다. 참가자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경험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모두의 창업 2기 출범식’을 열고 1차 관문을 통과한 1만명의 도전자를 대상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과 고민을 나누면서 창업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도전 문화를 확산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책임 멘토의 심사 총평과 선배 창업가들의 응원에 이어 중기부 장관과 1·2기 도전자들이 창업 정책

방향과 창업 아이디어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책임 멘토로 참여한 정승경 아이엘인스티튜트 대표는 기술 자체의 화려함보다 문제 정의와 현장 적용성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백상일 크리드파트너스 대표는 도전

자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로컬 브랜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차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재도전을 거쳐 2기에 선정된 한 참가자는 버려지는 포도 부산물을 활용한 비누 제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지역의 농산 부산물을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해 사업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례다.

중기부는 창업 도전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1만명의 도전자가 개개인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갈 주인공이다”며 “도전자들이 마음껏 시도하고 실패에서 배우며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창업의전과정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한국농어촌공사는 20일 인공지능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

농어촌공사,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취득

농식품부 산하 기관 최초...윤리·개인정보·보안 체계 구축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공지능(AI)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다.

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 가운데 최초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

(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제정한 표준이다. AI 개발부터 운영·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 있는 활용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기준이다.

공사는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면서 안전한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해 왔다. AI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등에 관한 기준을 세워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자체 플랫폼인 ‘KRC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해 임직원 사규·감사·민원 등 업무 처리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인증은 공사가 구축한 AI 관리체계가 국제표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AI 활용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

중기부, EU 포장재 규제 대응 지원에 나선다

유해물질 검증·기술문서 작성 등 현장 애로 해소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제 시행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현장 애로 해소와 대응 지원에 나섰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부터·식품·포장재 분야 중소기업 및 관련 전문가들과 ‘EU 포장재 규제(PPWR) 대응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PPWR은 EU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포장재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제한과 재활용 가능성, 재생원료 함량, 라벨링 등의 요건을 규정한 제도다. EU 역의

기업에도 적용돼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 역시 규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8월 12일부터 포장재 유해물질 제한과 적합성평가 관련 규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면서 기업들은 포장재에 중금속과 과불화화합물(PFAS) 등 유해물질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기술문서와 EU 적합성선언서(DoC)를 마련해야 한다.

2030년부터는 재활용 가능성과 재생원료 함량 등 추가 요건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유해물질 함유 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품별 시험·분석 비용과 영문 기술문서 작성 부담도 큰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포장재 공급망 정보 확보의 어려움과 제품별 시험·분석 비용 부담, 영문 기술문서 및 적합성선언서 작성 애로 등을 전달했다. 또 기업별 상황에 맞춘 전문가 1대 1 상담도 제공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비롯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호남연수원-제조혁신피지컬AI협회 ‘맞손’

생산·품질·설비 현안 반영...현장맞춤 교육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이 제조현장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피지컬 AI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중진공 호남연수원은 20일 중진공 전북 지역본부에서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와 ‘제조혁신피지컬 AI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조현장의 AI 활용이 생산공정 분석과 품질관리를 넘어 AI와 로봇·설비가 결합하는 피지컬 AI 분야로 확대되는 데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피지컬 AI는 로봇이나 기계 등이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실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양 기관은 호남연수원의 교육 기획·운

영 경험과 교육 인프라에 협회의 회원사 네트워크 및 분야별 전문성을 접목해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피지컬 AI 분야 직무연수 공동 기획·운영, 회원사 교육 수요 발굴과 기업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전문강사 발굴, 현장 적용방안 수립 및 교육 인프라 연계 등이다. 연수생 모집과 홍보, 교육 성과 공유에도 협력한다.

교육과정은 기업별 AI 활용 수준과 제조현장의 주요 과제, 교육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마련한다. 송대용 기자

아카데미홀 대관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사옥 1층)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대관료 : 오전 10만원/시간 · 오후 20만원/시간
※ 오전·오후 이용시간은 별도 문의

